

# IBKS FI Comment

## 2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조정 장세

- 최근 호조를 보인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
- 특히 '21년부터 최근까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소비심리지수에 주목해야 될 것
- 이례적인 경기 호조를 보인 '23년 수치보다 높은 만큼 피벗 기대감 일축시킬 필요성이 높아진 국면
- FOMC 회의에서 매파적 스탠스를 드러낼 유인이 커진 것으로 보임
- 한편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경고한 공급 측면 물가상승률에 여전히 유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
- '23년 국제유가는 '22년 대비해서 크게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 안정화에 기여
- 다만 '24년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타이트한 국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70~80\$)
- 주요 물가 실물지표가 확인될 2월까지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미국채 10Y 상단: 4.5%)

## 2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조정 장세

최근 미국 12월 CPI, 소매판매 및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일부 연준 관계자들이 매파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금리의 되돌림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CPI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여전히 견고한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소매판매는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는 현 기준금리 인상기인 '21년부터 최근까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례적인 경기 호조를 겪은 '23년보다도 본 지표가 크게 상승한 것은 여전히 미국 총수요가 견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기한 경제지표들의 호조와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고려할 시, 다가올 FOMC 회의에서는 매파적 스탠스가 예상되며 금리의 조정 장세는 2월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본격화된 11월 미국채 10Y의 평균 금리가 4.5%였다는 점을 감안할 시, 상단을 4.5%까지도 잡을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연설문에서 한 언급들 중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었으나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요인들을 언급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보스틱 총재는 미-중 갈등, 중동 리스크, 미국 정부의 예산 등 물가 상승의 공급 요인들을 언급했는데, 최근 국제유가 흐름을 보면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가 더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3년 국제유가는 생각보다 타이트한 추이를 보여줬지만, '22년 대비해서는 하락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하락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 다만 여러 국제 불안 요인들을 고려할 시, '24년에도 유가가 여전히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관들이 많은 가운데, 최근 OPEC+도 '24년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전망치에서도 '24년 유가는 70~80달러 사이를 계속해서 등락할 것이다. 과거 경험상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으며, 유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물가상승률의 안정적인 하락 추세 확인은 어려울 수도 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월러 이사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2월에 나올 1월 CPI와 계절 조정된 이후의 '23년 물가상승률 추이를 봐야 할 것을 언급했다. 즉 여전히 물가상승률의 2%대 안착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함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의 스탠스가 금리의 주요 변동 요인인 만큼, 그들이 주시하는 1월 CPI가 나올 2월 중순까지 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 Fixed Income Analyst

권기중

02) 6915-5654

kjoong@ibks.com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 1. 이례적인 경기 호조를 보인 '23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최근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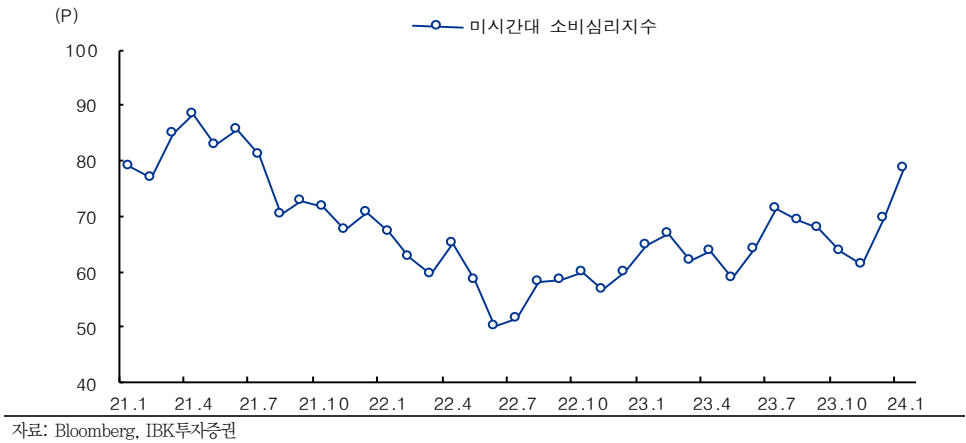


그림 2. '22년 대비해서는 하락했던 '23년의 WTI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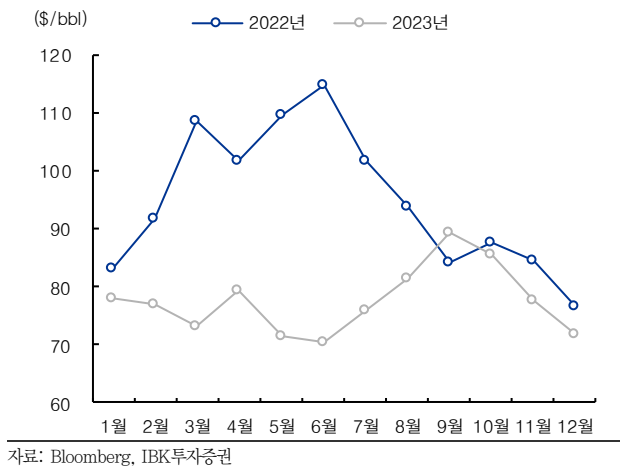


그림 3. '24년도 타이트할 것으로 보이는 WTI 가격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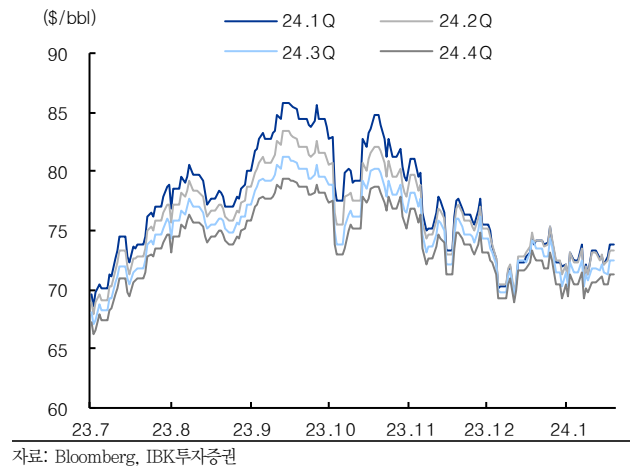


그림 4.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 물가상승률(CORE PCE)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임

